



이해양 무주군 의장, 남원예비군훈련대 격려방문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이 지난 21일 남원예비군훈련대를 방문하여 훈련 중인 예비군을 격려하고 부대 관계자들과 지역방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해양 의장은 이날 무주대 해체 후 무주군 예비군의 훈련 방식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고자 남원예비군훈련대를 방문했다. 이곳은 예비군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학장비와 최신 훈련기법을 대거 도입하고 모의전투를 통해 실전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장으로 최근 조성됐다. 예비군 훈련을 참관한 이해양 의장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남원훈련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무주군 거주 예비군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해양 의장은 진안·무주대대를 방문해 무주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 병사를 격려했다. 부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진안·무주대대 해체로 전시·재난대응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의회, 행정과 군이 현안논의를 긴밀히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빈 비전대 학생, 전국태권도대회 3관왕

전주비전대학교 장수빈 학생(태권도체육학과)이 지난 19~20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8회 한라배 전국장애인 한마음 태권도대회(결 제) 국제 장애인 태권도협회 초청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300여 명이 참여해 실력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장수빈 학생(2년, 만22세)은 △남자 개인전 청각 겨루기부문-88KG △청각장애인·일반부 2초(남) 대개인 품새부문 △단체 품새부문 1위 등 3개 부문에서 1위를 했다.

장수빈 학생은 "김순정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준 사려 깊은 가르침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순정 교수는 "장수빈 학생은 올 3월 청각 장애인 관정을 받는 어려움속에서도 태권도 국가대표선수를 목표로, 시범단 활동과 품새선수로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한 훈련을 통해 지난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을 걸며 모든 체육인들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경진원,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열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혈액 수급과 생명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2일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다.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진원 직원들이 뜻을 모아 참여하는 행사이다.

행사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혈 버스 내 시설과 기기를 소독하고 환기를 진행했으며,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혈액은 장기적 보관이 어려워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 한 번의 헌혈이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수혈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마음으로 헌혈운동에 참여했다"며 "혈액 수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계 헌혈에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공식 지정병원 선정

전북대병원, 대회 기간 참가 선수단 의료서비스 지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완주군에서 개최되는 2022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K리그 국제통합축구 클럽컵 대회 지정병원으로 선정돼 대회 기간(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동안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전북대병원 본관에서 유희철 병원장, 이훈용 스페셜올림픽 회장 등 관계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 선수단의 의료서비스를 지원 상호협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대회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전북대병원은 대회기간 중 사전에 협의된 의료 인력을 추경경직장에 배치하고, 부상선수 병원 후송 시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대회 진행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유희철 병원장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뜻깊은 문화 스포츠 교류 행사에 공식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의 안전

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K리그 국제통합축구 클럽컵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 스포츠 교류 행사로 국내의 통합축구 클럽팀 6개 팀이 참가해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동안 완주군 내 완주공설운동장 및 전북현대모터스클럽하우스 일대에서 경기 및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김영태 기자

진안군·K-water, 탄소제로형 생태마을 시범사업 추진 협약

진안군 용담호 주변에 국내 최초 탄소제로형 생태마을이 들어선다.

진안군과 K-water 용담댐지사, 금강유역환경청 주민협의회는 22일 용담댐지사 상황실에서 국내 최초로 탄소제로형 생태마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안전편 노성리, 삼락리, 신과리 일원에 탄소제로형 생태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탄소흡수(수변생태벨트, 생태습지원, 볼레길 산책로) △탄소저감(햇빛발전소추진, 시설재배지 태양광설치, 스마트팜 조성) △물순환(빗물저장통, 스마트관수, 친환경퇴비함) △주민지원사업(에코마케팅, 커뮤니티센터,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 간 상호 협력 등이다.

전춘성 군수는 "용담댐 주변 지역 대상 주민참여형 탄소제로 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 상생협력 및 댐 상류 물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담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화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춘향재단, 이사회 개최... 장학재단 임원 11명 참석

제)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희석)은 지난 21 오후 2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장학재단 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2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과, 2023년 교육지원사업 개선 및 예산편성, 장학금고 운영 규정 개정, 남원장학수 입사생 기준 개선 등을 심의, 우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학력신장 위주의 학력기증사업과 방과후 성격의 소규모 예제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최근 교육경향에 맞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남원을 빛낸 테니스 조세혁, 현대무용 정건세, 골프 안혜천, 복식의 곽효준 등 우리시 위상을 높이는 우수에·체능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가운데 에·체능 영재육성 및 특성학교 명장육성에 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지원사업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 신설하여 지원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에·체능 특기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초·중·고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에 소



재하는 남원장학수 입사생 중 에·체능 특기생을 별도 선발하며, 특정인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최희석 이사장은 "남원의 빛낸 영재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남원인재재단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에 결과물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어촌공 남원지사,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흥호)는 지난 21일, 이백면 계산마을 일원에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가꾸고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직원 13명이 참여해 영농기 이후 농로나 배수로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가 끝난 후 인근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복지관 주변 잡목제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남원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공사가 적극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자치사랑방, 재능기부 공연

남원시 죽향동자치사랑방(위원장 김진택)은 22일 한빛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재능기부 공연을 실시했다.

이번 공연에는 강도근전국소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민요팀을 비롯한 4개팀 40여명이 참여해, 병마에 지친 환우들을 위한 공연을 2개월전부터 준비했으며, 입원한 환우들은 모처럼만에 흥겹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며 흥에 겨워 어깨를 들썩이었고, 노래감상 시간에는 함차게 노래를 따라 불렀다.

죽향동 자치사랑방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금년 6월 7일 첫 개강, 문화소양, 체육단련, 외국어 감상 등 현재 10여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김진택 위원장은 "연말에는 자치사랑방 전수강생이 함께하는 자체발표회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아동폭력 근절 챌린지 동참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아동폭력근절 온라인 캠페인 '#ENDViolence 챌린지'에 동참했다.

#ENDViolence 챌린지는 분쟁과 재난,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다양한 폭력 상황에 놓여있는 세계이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각계각층 인사들의 열렬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캠페인은 챌린지 로고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아동폭력 근절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가자 2~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김태현 이사장은 아동 폭력 근절을 촉구하기 위한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전북도청 김관영 도지사 △전북경찰청 강홍수 청장을 지목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신흥글로벌, 전주대에 발전기금 1400만원 전달

신흥글로벌(주)은 지난 22일 대학 본관 접견실에서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정협용 전무, 구상운 기획팀장과, 박진배 총장, 홍성덕 대외부총장, 김문택 인문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

신흥글로벌(주)은 노력과 수고의 열매로 생긴 이익을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며,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웃사랑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이라는 꿈이 있는 전주대를 응원하며, 인재 양성을 위해 1,400만 원을 기부했다.

구자천 회장을 대신해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협용 전무는 "꿈을 갖고 도전하는 전주대 학생들을 응원하며, 더 많은 수퍼스타들이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신흥글로벌(주)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기부의 뜻을 귀하게 여겨 인재 양성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나 창원사가 본사인 신흥글로벌(주)은 신성그룹의 일원으로, 신성그룹은 가전제품, 부품을 비롯해 2차전지 부품, 물류 등 여러 사업 부문에서 연간 약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다. 해외 8개국에 18개 법인, 25개 사업장이 있으며 직원은 국내 800명, 해외 1,200명 등 총 2,000여 명이다. 자회사인 신흥글로벌(주)은 글로벌 물류 서비스 회사로서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두고 구매대행, CKD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 5만여 평의 부지에 신공장을 준공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상의,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1만장 기탁

전주상공회의소는 완산구 향교길(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나눔 기부 봉사활동을 지난 21일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임직원 30여명과 전주연탄은행 관계자 1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여해 다가오는 겨울바람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훈훈한 손길과 마음의 정을 함께 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차상위 계층 및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1만장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도내 기관 및 기업들이 다같이 동참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ESG(사회적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매년 '사랑의 연탄봉사, 무료급식봉사,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